

1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34.70 (-1.88)	882.72 (-15.3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53 (-0.010)	1330.00 (+2.20)

metro® 경제

尹 대통령
초거대 AI 도약 위해
9090억 마중물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철의 트라이앵글’ 시대, 규범·이익 현명하게 판단을”

尹, 2차 개각 단행

국방 신원식 문체 유인춘 여가 김행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유인춘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2차 개각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군 복무한 3성장군 출신”이라며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맞춰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 자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신 후보자는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등을 지냈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춘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문화예술 현장에서 오래 종사한 분”이라면서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을 수행하며 정책역량도 갖춘 분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케이(K)-컬처의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우리 정부에서 폐지를 할 방침”이라면서도 “후보자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험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갖고 있어 전환기를 맞은 여가부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메트로신문·경제
‘2023 감사 리더스 씨밋’

대내외 불확실성·리스크 이슈 속 전 금융사 감사 40여명 한자리에 윤증현 前장관 ‘감사의 역할’ 강조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3 감사 리더스 씨밋(Leaders Summit)’이 열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이슈로 부상한 시점에 열린 언론사 최초의 감사 씨밋이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회사 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리더스 씨밋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순우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은 “금융회사는 황령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업종 중 하나다”라며 “사회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의 임무를 가진 감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찬을 겸한 이날 씨밋에선 윤증현 윤경제연구원(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대내외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여서 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우리는 철의 트라이앵글(Iron triangle) 시대에 살고 있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1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3 감사(監事) 리더스 씨밋’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첫번째 줄 왼쪽부터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 양현근 우리은행 상임감사, 김도인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전 금감원 부원장), 송윤진 신한투자증권 상근감사, 이정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이순우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전 우리금융 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류찬우 신한은행 상임감사, 조성래 BNK부산은행 상임감사, 배준석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이옥원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며 “감사가 기존의 룰(규범)만 지키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또 조직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의트라이앵글은 이익집단(기득권 세력), 관료, 정치권의 유착구조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익집단(기득권 세력)은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고 관료는 퇴직후 자리보전, 정치권은 표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법안제정은 미루는 사태를 말한다.

그는 평소의 지론대로 경제를 짓누르는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경제성장률과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화두이자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감사 리더스 씨밋에 참가한 김형남 다올투자증권 상근감사는 “회사의 단순한 감사보다는 한 국가의 경제흐름에서 필요한 감사의 역할을 알 수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날 감사 리더스 씨밋에서는 윤 전 장관 외에 45명의 은행, 보험, 카드, 증권사 감사가 참석했다.

메트로신문 이장규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능숙한 기수는 말고삐를 아주 살짝만 당겨 말이 제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회사의) 감사는 보

이든 보이지 않든 조직이 바른 길로, 정 도로 나아가갈 수 있게 한다”면서 “감사는 언론처럼 견제·비판·감시·적발이 숙명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 감사 리더스 씨밋은 감사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가 유지되는 협의체적인 포럼이다. 각 회사 감사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명감의’를 직접 접하는 시간이다. 또한 세미나, 탐방 등을 통해 선진 감사시스템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 이날 윤증현 전 장관의 강연에 이어 오는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베서더서울호텔에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강연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업무효율 ‘쑥’, 비용 ‘뚝’... 유통가 ‘생성형 AI’ 도입 바람

현대백화점, 네이버 ‘루이스’ 도입 2주 소요 카피, 3~4시간으로 감축
롯데쇼핑, 업스테이지와 손 잡고 신규서비스·유통특화 AI 개발 나서

국내 굴지인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도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특히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유통업계가 AI 활용에 적극적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롯데온 등 유통 관련 업계가 AI를 개발하거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에 속력

을 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초 마케팅 문구 제작 등 업무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카피라이팅 시스템 ‘루이스’를 도입했다. 현대백화점은 루이스에 최근 3년간 사용한 광고와 카피, 판촉물에서 사용한 문구 등의 데이터를 학습 시킨 뒤 현대백화점 임직원 120명의 테스트를 거쳤다. 그간 기획, 의도, 메시지 등 외주를 거쳐 2주 가량 걸리던 카피가 평균 3~4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롯데쇼핑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롯데쇼핑은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인 업스테이지와 ‘생성형 AI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유통 특화 AI 개발에 나선다. 특히 내부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업스테이지는 생성형 AI 관련 기술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롯데쇼핑만의 유통, 물류 노하우와 고객 구매 데이터에 업스테이지 기술력을 접목해 AI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업계 특화된 롯데쇼핑만의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롯데온은 올해 6월 업스테이지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개인화된 AI 상품 추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

품 추천 AI 도입 후 롯데온의 구매전환율은 1월에 실시한 테스트에 비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신라는 네이버와 상호 서비스 연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 특히 네이버와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 기반 호텔·면세 사업의 디지털 전환 ▲멤버십 제휴를 통한 온오프라인 고객 혜택 확장 ▲호텔·면세 서비스 사용자 편의 향상 등을 목표로 전략적 사업 제휴를 추진한다.

호텔신라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호텔 및 면세 서비스 사업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 ▲ 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국제 여론전 /사진 뉴스스

- ▲ 대법원장·감사원장 ‘공관 의혹’에 권익위 “문제없다”
-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 “탈원전, 한전 적자 중요 원인”



- ▲ 美 상무부 부장관 방한... 중·러 수출통제 등 논의
- ▲ 유병호, 압수수색에 “위법행위자 주장을 그대로” /사진 뉴스스